

2010 EAI 사회과학 대강좌

역사 속의 젊은 גד들

18C 실학파에서 21C 보합파까지



I. 미래 속의 젊은 우리들?

'청년'의 개념사

청년의 개념사

1. 일본


- 1887 도쿠도미 소호(德富蘇峰) <新日本之青年>
- 구일본의 노인/구일본의 장사/신일본의 청년

2. 한국

- 1890년대 독립신문
-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
- 1910년대 제일동경유학생학우회 <學之光>(1914-1929)
- <新青年>(1919-1921)

3. 중국

- 1915 천두슈(陳獨秀) <新青年>(1915-1926)



II. 역사 속의 젊은 그들

歴史

18C

- 권철신 (173b ~ 1801)
- 권일신 (1742 ~ 1791)
- 이가환 (1742 ~ 1801)
- 이 벽 (1754 ~ 178b)
- 이승훈 (175b ~ 1801)
- 정약전 (1758 ~ 181b)
- 정약중 (17b0 ~ 1801)
- 정약용 (17b2 ~ 183b)

- 홍대용 (1731 ~ 1783)
- 박지원 (1737 ~ 1805)
- 이덕무 (1741 ~ 1793)
- 백동수 (1743 ~ 181b)
- 유득공 (1749 ~ 1807)
- 박제가 (1750 ~ 1805)
- 이서구 (1754 ~ 1825)

- 김정희 (178b ~ 185b)

19C

- 최한기 (1803 ~ 1879)
- 박규수 (1807 ~ 1877)
- 유흥기 (1814? ~ 1884?)
- 오경석 (1831 ~ 1879)
- 김윤식 (1835 ~ 1922)
- 어윤중 (1848 ~ 189b)
- 이동인 (1849 ~ 1881)

- 김옥균 (1851 ~ 1894)
- 홍영식 (1855 ~ 1884)
- 유길준 (185b ~ 1914)
- 서광범 (1859 ~ 1897)
- 민영익 (1860 ~ 1914)
- 박영호 (1861 ~ 1939)
- 변 수 (1861 ~ 1892)
- 서재필 (1864 ~ 1951)
- 윤치호 (1865 ~ 1945)

- 이승만 (1875 ~ 1965)
- 김 구 (187b ~ 1959)
- 안창호 (1878 ~ 1938)
- 신재호 (1880 ~ 193b)

20C

- 홍명희 (1880 ~ 1968)
- 조만식 (1883 ~ 1950)
- 여운형 (188b ~ 1947)
- 조소앙 (1887 ~ 1958)
- 안재홍 (1891 ~ 1955)
- 김양수 (189b ~ 1969)
- 심 훈 (1901 ~ 193b)

- 김성수 (1891 ~ 1955)
- 신익희 (1892 ~ 195b)
- 장덕수 (1894 ~ 1947)
- 송진우 (189b ~ 1945)

- 최남선 (1890 ~ 1957)
- 이광수 (1892 ~ 1950)

- 김명식 (1890 ~ 1943)
- 김철수 (1893 ~ 198b)
- 박헌영 (1900 ~ 195b)
- 김일성 (1912 ~ 1994)

- 이용희(1917 ~ 1997)

III. 미래 속의 젊은 우리들

歴史



2010 EAI 사회과학 대강좌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연암 박지언과 백담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하영선

E - Mail : ysha@snu.ac.kr



I. 만남

1. 중국의 부상과 미래

주요국 GDP(명목) 전망

(단위 : 10억 US\$)

STAT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World	57,228	60,495	63,429	66,834	70,570	74,660
European Union	16,191	16,869	17,308	17,844	18,433	19,055
United States	14,266	14,704	15,327	16,009	16,729	17,419
Japan	5,049	5,187	5,267	5,411	5,591	5,792
China	4,758	5,263	5,844	6,524	7,288	8,283
Germany	3,235	3,326	3,358	3,398	3,443	3,486
France	2,635	2,745	2,823	2,907	2,999	3,089
United Kingdom	2,198	2,353	2,472	2,611	2,759	2,919
Italy	2,090	2,172	2,205	2,247	2,296	2,355
Russia	1,255	1,364	1,533	1,706	1,897	2,128
Spain	1,438	1,475	1,487	1,506	1,534	1,568
Brazil	1,438	1,475	1,487	1,506	1,534	1,568
Canada	1,319	1,439	1,511	1,584	1,652	1,713
India	1,243	1,339	1,449	1,583	1,740	1,908
Mexico	866	953	1,015	1,098	1,187	1,274
Australia	920	983	1,006	1,040	1,079	1,126
South Korea	800	855	927	1,006	1,087	1,168

주요국 군사비 지출

(단위 : 100만 US\$)

RANKING	STATE	MILITARY BUDGET	STATISTICS
-	World	1,470,000	2008
1	United States	663,700	2010
-	European Union	312,259	2008-2009
2	France	70,614	2008-2009
3	China	70,309	2009
4	United Kingdom	65,150	2009-2010
5	Japan	48,860	2008
6	Germany	45,930	2008
7	Italy	40,050	2008
8	Russian Federation	39,600	2009
9	India	32,700	2009-2010
10	Iraq	32,400	2009
11	Saudi Arabia	31,050	2008
12	Turkey	30,936	2008
13	South Korea	28,500	2008
14	Brazil	23,973	2009
15	Australia	23,041	2009-2010

I. 만남

2. 중국과 한반도

2. 중국과 한반도

- ✓ 가. 중국의 천하질서와 한국
- ✓ 나. 근대 한중관계
- ✓ 다. 냉전시대 한중관계
- ✓ 라. 복합화시대 한중관계

I. 만남

3. **쫓겨 바로 알기: 여행로 익기**
공격 방어 리

중국 바로 알기 : 여행로 읽기

- ✓ 가. 13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500여종
- ✓ 나. 이정귀/김창업/홍대용/박지원/박제가/
김정희/박규수/

II. 삶

1. 우월한 가슴앓이 무덤과 문명

1. 우울한 가슴앓이(1737년~1770년)

년도	연호	나이	내용
1737년	영조 13년	1세	음력 2월 5일 반남 박씨 박사유(朴師愈, 1703-1767)와 함평 이씨 사이 2남 2녀 중 막내로 한양 반송방(盤松坊) 야동(冶洞, 서울 서소문밖 풀무골) 에서 태어남. 휘는 지원, 자는 중미, 호는 연암. 조부 필균(弼均)은 경기도 관찰사, 지돈녕 부사를 지냈으며 선조 때의 명신인 박소(朴紹) 이후 명문가
1739년	영조 15년	3세	형 희원 장가 들다. 형수는 어린 연암을 잘 돌봄.
1752년	영조 28년	16세	관례를 올리고 유안재 이보천의 딸과 혼인. 장인 유안재에게 《맹자》를 배우고, 처숙인 홍문관 교리 이양천에게 문장 짓는 법을 배움
1754년	영조 30년	18세	우울증으로 고생. 사람들을 청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쳐 보고자 함. ‘민옹전’ 의 민유신을 만난 것도 이 무렵임. 거지 광문의 이야기로 ‘광문자전’ 을 씀
1755년	영조 31년	19세	연암의 학문을 지도했던 영목당 이양천이 40세에 별세.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제영목당이공문(祭榮木堂李公文)’ 지음.

1. 우울한 가슴앓이 (1737년~1770년)

1756년	영조 32년	20세	김이소, 황승원, 홍문영, 이희천, 한문홍 등과 북한산, 봉원사 등에서 공부. 봉원사에서 윤영을 만나서 허생 이야기를 들음. 이 무렵 <마장전>과 <예덕선생전>을 지음
1757년	영조 33년	21세	시정의 기이한 인물이나 사건 얘기를 듣고 ‘방경각외전’을 씀. 불면증과 우울증이 깊어졌다.
1759년	영조 35년	23세	어머니 함평 이씨가 59세의 나이로 사망. 큰딸이 태어남
1760년	영조 36년	24세	할아버지 박필균이 76세의 나이로 사망. 조부의 신중한 처신과 청렴한 생활은 연암에게도 큰 영향을 끼침
1761년	영조 37년	25세	북한산에서 독서에 매진 이 때 수염이 은백이 되었다고 함. 김이소(金履素) 등 10여 명과 과거 공부를 함. 단릉 처사 이윤영(李胤永)에게 주역을 배움. 홍대용(洪大容)을 만남
1764년	영조 40년	28세	<양반전>과 <서광문전후>를 지음

1. 우울한 가슴앓이 (1737년~1770년)

1765년	영조 41년	29세	<p>유언호, 신광은 등과 금강산 유람. 종석정을 보고, ‘叢石亭觀日出’ 를 썼다. 《열하일기》에 전편 수록.</p> <p><김신선전>을 지음.</p> <p>홍대용이 숙부 홍역의 수행원으로 연행 (12월 27일 북경 도착, 다음 해 5월 2일 귀국).</p>
1766년	영조 42년	30세	<p>장남 종의가 태어남.</p> <p>홍대용의 ‘건정동회우록(乾淨洞會友錄)’에 서문을 씀. 홍대용과 중국 사람들의 우정을 예찬하고, 청을 무조건 배격하는 사람들을 비판.</p>
1767년	영조 43년	31세	<p>아버지 박사유가 65세에 별세. 장지 문제로 녹천 이유 집안과 시비가 벌어짐. 상대방 상소를 올렸던 이상지(李商芝, 1729-1799)가 관직에서 물러나자 연암도 벼슬길을 단념. 삼청동에 있는 무신 이장오의 별장에 세를 얻어 살기 시작.</p> <p><우상전>, <역학대도전>, <봉산학자전>을 지음.</p>

1. 우울한 가슴앓이(1737년~1770년)

1768년	영조 44년	32세	백담 근처로 이사해 이덕무, 이서구, 서상수, 유금, 유득공 등과 가까이 지냄. 박제가(朴齊家), 이서구(李晝九)가 제자로 입문.
1769년	영조 45년	33세	이서구 문집 녹천관집(綠天館集)의 서문 ‘옛 사람을 모방해서야〔綠天館集序〕’를 씀
1770년	영조 46년	34세	감시(鑑試)의 초종장 모두 장원. 영조가 격려. 회시에서 답안지 내지 않고 나옴. 장인 이보천이 크게 기뻐함. 이후 과거를 보지 않고 술을 즐김.

The background features a world map with a glowing green arc curving across it. On the left, the Korean characters '歴史' (History) are written vertically in a light blue font. A dark blue horizontal line is positioned below the main title.

II. 삶

2. 백담파 모임

2. 백담과 모임(1771년~1785년)

년도	연호	나이	내용
1771년	영조 47년	35세	큰누님 박씨가 43세로 사망. 이덕무, 백동수 등과 송도, 평양을 거쳐 천마산, 묘향산, 속리산, 가야산, 단양 등 명승지를 유람, 황해도 금천 연암골 답사.
1772년	영조 48년	36세	가족들을 광릉 석마향(石馬鄉, 경기도 성남시 분당) 처가로 보내고 서울 전의감동에 혼자 살기 시작. 홍대용, 정철조, 이서구,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과 더욱 친하게 사귀. 박제가 문집 《조정집(楚亭集)》에 ‘범고창신’ 의 서문 씀.
1773년	영조 49년	37세	유등곡, 이덕무와 서도 유람. 허생 이야기를 한 운영과 재회
1776년	영조 52년	40세	북학파 문집인 ‘한객건연집’ 출간. 이 책은 북학파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4명의 시를 모아 엮음. 엮은 중국인 이조원이 ‘四家之詩’ 라 불러 ‘四家詩集’ 으로 더 유명함.

2. 백답과 모임(1771년~1785년)

1777년	정조 1년	41세	장인 이보천이 64세의 나이로 사망
1778년	정조 2년	42세	<p>북경으로 떠나는 이덕무와 박제가를 전송.</p> <p>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던 형수 이씨가 55세로 사망.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홍국영의 견제를 피해 연암골에 은둔. 조가삼간을 장만하고 손수 뽕나무도 심었다. 유언호의 도움으로 개성 금학동 양호맹의 별장에서 이행작, 이현겸, 양상희, 한석호를 가르침.</p> <p>다시 연암골로 돌아 옴.</p>
1779년	정조 3년	43세	<p>이덕무, 박제가, 유득공이 규장각 검서로 발탁됨. 이 무렵에 쓴 ‘答洪德保書’ 세 통은 홍대용에게 연암골 생활을 전하고, 세 사람이 기용된 것을 축하.</p>

2. 백담과 모임(1771년~1785년)

1780년	정조 4년	44세	<p>홍국영이 실각하자 서울로 돌아와 처남 이재성의 집에 머물렀다. 삼중형인 금성도위 박명원을 따라 여행. 5월에 출발 8월에 북경 도착 열하 방문후 10월 귀국. 《열하일기》를 쓰기 시작. "산장잡기"에서 “평생 괴이 함을 보기가 열하 때를 능가한 적이 없었다(平生詭異之觀 無逾在熱河之時)” 라고 씀.</p> <p>둘째 아들 종채가 태어남.</p> <p><허생전>, <호질>을 지음.</p>
1781년	정조 5년	45세	<p>영천 군수로 있던 홍대용은 연암의 <열하일기> 저술을 격려. 박제가 《北學議》의 서문을 씀</p>
1783년	정조 7년	47세	<p>담헌 홍대용 53세로 사망. 손수 옴을 하고, 담헌의 중국 벗 손유익에게 부고 전함. ‘洪德保墓誌銘’을 씀. 이후 연암은 음악을 끊었음.</p> <p>《열하일기》 첫 편 ‘압록강을 건너서〔渡江錄〕’의 머리말을 씀.</p>



II. 삶

3. 뒤늦은 벼슬살이

3. 뒤늦은 벼슬살이(1786년~1805년)

년도	연호	나이	내용
1786년	정조 10년	50세	7월 유언호가 천거하여 선공감역에 임명됨. 연암이 음보(蔭補)로 처음 출사하자 노론 벽파의 실력자 심환지(沈煥之), 정일환(鄭日煥) 등이 찾아와 자파로 끌어 들이려 했으나 연암은 거절.
1787년	정조 11년	51세	부인 전주 이씨가 51세로 사망. 박지원은 그 뒤로 혼자 지냄. 큰형 희원이 58세로 사망 연암골에 있는 형수의 무덤에 합장
1788년	정조 12년	52세	맡며느리 이씨가 전염병으로 사망 장남 종의도 위독했으나 희생. 종제 박수원이 선산부사로 나가 있는 동안 계산동 집을 빌림.
1789년	정조 13년	53세	평시서주부로 승진. 가을에 공무의 여가를 얻어 다시 연암골로 들어감.

3. 뒤늦은 벼슬살이(1786년~1805년)

1790년	정조 14년	54세	<p>삼중형 박명원이 66세로 사망.</p> <p>사복시주부로 전보되었으나 사퇴. 사헌부감찰로 전보되었으나 사퇴. 제령에 임명되자 한가한 곳에서 독서하고 글쓸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함. 말단 벼슬로 유유자적한 모습을 ‘齋居’로 씀.</p>
1791년	정조 15년	55세	<p>한성부판관에 임명됨. 모함을 받아 강등되어 겨울에 안의현감으로 부임.</p>
1792년	정조 16년	56세	<p>1월, 안의현에 도착. 안의현 당시 인구 5천여 호. 문체반정의 바람이 서서히 일기 시작.</p>
1793년	정조 17년	57세	<p>《열하일기》로 잘못된 문체를 펴뜨린 것을 속죄하라는 정조의 하교를 받고, ‘答南直閣公轍書’를 씀. 임금의 문책을 받은 처지로 새로 글을 지어 잘못을 덮으려는 것은 오히려 누가 된다고 함.</p> <p>이덕무가 53세로 사망. 정조가 이덕무의 행장을 짓도록 하여 ‘炯菴行狀’을 썼다. 이덕무의 유고집을 냄. 흥년이 들자 자기 녹봉을 덜어 백성을 구함. 지나친 수절 풍습을 비판한 ‘烈女咸陽朴氏傳并序’를 썼다. 계속 유한준의 모함을 받음.</p>

3. 뒤늦은 벼슬살이(1786년~1805년)

1795년	정조 19년	59세	전라감사 이서구가 천주교를 비호한다고 유배를 가자 ‘ 答李監司 謫中書 ’ 를 보내 위로. 차남 종채가 혼인.
1796년	정조 20년	60세	안익현 백성들의 송덕비 건립을 막음. 안익현감 마치고 서울로 돌아옴. 종로구 계동에 벽돌을 사용하여 계산초당을 지었다. 아들 박종채가 머물렀고, 손자 박규수가 이곳에서 태어남. 제용감주부에 임명되었다가 의금부도사로 전보되었다. 유언호가 67세로 별세.
1797년	정조 21년	61세	7월, 면천군수에 임명되어 임금을 알현하고, 문체 이야기를 다시 함. 정조의 명령으로 ‘ 書李邦翼事 ’ 를 씀. 충청감사와 불화 ‘ 答公州判官金應之書 ’ 를 씀.
1798년	정조 22년	62세	군수로 있던 면천군에 천주교가 성행했으나, 천주교도들을 크게 벌하지 않고 방면.

3. 뒤늦은 벼슬살이(1786년~1805년)

1799년	정조 23년	63세	봄에 흉년이 들자, 안의현처럼 봉록을 덜어 백성을 구휼함. 농서 《課農小抄》를 썼다. ‘限民名田議’가 부록. 연행에서 본 것들과 조선에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14권의 책으로 엮음. 정조가 농서대전을 편찬케 해야겠다고 칭찬.
1800년	정조 24년	64세	6월 정조가 승하. 8월 양양부사로 승진.
1801년	순조 1년	65세	봄에 양양부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 옴. 신유박해가 일어남.
1802년	순조 2년	66세	겨울, 아버지의 묘를 포천으로 이장하려다가 유한준의 방해로 좌절. 유한준은 《열하일기》를 ‘虜號之稿’라고 비방 (答李仲存書三)
1805년	순조 5년	69세	10월 20일, 가회방 재동 집의 사랑에서 69세 사망



1826년

둘째 아들 박종채가 부친의 언행을 기록한 《과정록》 완성.주기 (1831)

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돌베개, 1998)

1829년

효명세자가 연암의 남긴 글을 올리라 했으나 세자의 1830년 사망으로 글이 돌아 옴.

* 연암문집

- 김택영 편찬 <연암집> (1900)
- 김택영 편찬 <연암속집>(1901)
- 최남선편 <연암외집 열하일기 전쫐> (조선광문회1911) 《열하일기》 처음으로 별책 출판됨
- 김택영 <증편 박연암 선생 문집>(중국 1917) <연암집> 과 <연암속집> 합본
- 김택영 《여한십가문초》 (1921), 조선시대의 대표적 산문선으로 박지원 포함.
- 박영철본 <연암집>(대동인쇄소 1932) 17권 6책
-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 상》 (북한국립출판사 1955). 중권 (1956년), 하권(1957년)
-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 상》 (북한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 《열하일기 하》 (1960)

* 연암문집

- 이가원 옮김 《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67/1987)
- 윤재영 옮김 《열하일기》 (박영사 1983)
- 《박지원 작품집 1》 (북한문예출판사 1991) (조선고전문학선집제bb권)
- 《박지원 작품집 2》 (북한문예출판사 1995) (조선고전문학선집제b7권)
-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 전3권 (보리, 2004) (겨레고전문학선집 1-3)
- 홍기문 옮김 《나는 께께 선생이라오》 (보리, 2004) (겨레고전문학선집 4)
- 신호열 김명호 옮김 <연암집> 전 3권 (돌베게, 2007)
-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 전 3권 (돌베게, 2009)

* 연암문집

- 三韓叢書
-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문제 다룬 책
균전법, 사창제, 화폐문제, 촌락조직, 관리등용법, 관리평가
법, 군사제도, 해양방위
- 偉人贊: 제갈량, 한위공, 왕양명



III. 압

1. 조화양이론

1. 존화양이론

- ✓ 북벌론에 대한 북학론의 명분적 근거
- ✓ 열하일기 일신수필(駙汎隨筆) :
존주이적(尊周夷狄)에 관한 세 견해를 소개하면서 존주와 이적이 반드시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
- ✓ 열하일기 흑정필담(鵠汀筆談) :
흑정과 서양, 중국역사에 관한 긴 필담
- ✓ 연암집 친척 이중존에게 보내는 편지 :
열하일기가 호로지서(胡虜之書)라는 비난 해명.

III. 압

2. 청조 대외정책의 보합성

2. 청조 대외정책의 복합성

- ✓ 열하방문기에 해당하는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 산장잡기(山莊雜記),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 찰십룬포(札什倫布), 반선시말(班禪始末), 황교문답(黃教問答)

III. 압

3. 조선의 대청 외교론

3. 조선의 대청 외교론

- ✓ 열하일기 심세편(審勢編)
- ✓ 열하일기 옥감야화(玉匣夜話)에 들어있는 허생전
 - 가. 지식 외교를 위해 와룡선생 같은 지략가를 임금에게 아뢰어 삼고초려할 것
 - 나.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가 망한 후 조선으로 넘어 온 명나라 장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권귀들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네트워크를 만들 것

3. 조선의 대청 외교론

- 다. 청나라를 치고 싶으면 우선 적을 알아야 하니 나라 안의 자녀들을 가려 뽑아 변복, 변발시켜 대거 중국유학을 보내서 벼슬시키고, 서민들은 중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청의 승낙을 받아 지식인과 장사꾼 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중국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청의 중심 세력들과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사실상 천하를 호령하거나 최소한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
- 라. 허생은 당시 힘의 역학관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북벌론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현실적 대안으로서 소프트 파워 외교론인 북학론을 제시
- 마. 연암은 중국을 ‘명+만주=청. 북벌론자들은 ‘청=오랑캐’ 라는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

IV. 남김

歷史

연암이 남긴 것

✓ 가. 19세기

1826 박종채 <과정록>

1830 효명세자 문집발간 노력 무산

✓ 나. 20세기

1900 김택영편찬 <연암집><연암외집>

1932 박영철본 <연암집>

1945- 남북한 판본

✓ 다. 21세기

